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경암송대회 시작되다

부서별 예선-오늘(28일), 본선-11월2일(금) 오후 7시, 결선

우리교회는 종교개혁 48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말씀만(Sola Scriptura)을 외친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날로 정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위해 오늘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시작한다.

예선전은 오늘(28일 주일) 각 교회학교별로 실시하며 자체심사 및 시상을 하고

파이프 오르간 2003년 6월에 설치된다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 설계와 동시 파이프 오르간 위치 및 발주를 계획하고 추진하던 중 지난해 6월 독일 크라이스 파이프 오르간 회사와 3년내 발주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57 Stops 파이프 오르간은 약 4500개 이상의 파이프를 통해 장엄한 음을 내게 되는데 파이프는 현재 강단 정면에 세워진다. 1년6개월동안 설계 및 자재를 완벽하게 준비하게 되며 1년간 파이프와 나무로 오르간을 제작케 된다. 2003년 1월 작업 완료후 6주간 선적하여 운반하고 3개월 내지 4개월간 독일에서 파송된 5명의 기술진이 현장에서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면 2003년 6월 늦어도 7월에는 봉헌식을 갖게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크라이스 회사 부사장인 Horst Sandner씨가 건축후 현장 점검차 우리교회를 방문하고 최고의 자재와 최

선의 기술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정성과 힘을 다할 것을 이종운 목사께 다시 다짐했다.

비전2020운동본부 23사단 세례식 참석

비전2020 운동본부는 금년 12월 8일 육군 제23사단 세례식에 참석한다. 그 동안 교회는 군복음화운동의 일환으로 3사단과 23사단의 세례식 및 위문품을 지원하고 군복 및 군증명을 교회로 초청하여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가져왔다. 금년 23사단 세례식에는 200~250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으며 세례식이 끝난 후에는 식사시간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친선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23사단에서는 컴퓨터 등의 후원품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번 방문 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품은 컴퓨터 1대와 위문금 및 떡과 다과이다.

사명자대회 계속되다 - 22일째 행진중

사명자대회행진이 22일째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불황으로 중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 기도하며 아직 참여치 못한 성도는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기도로 은혜를 받도록 한다.

예선전에서 선발된 교회학교 대표들이 모여 11월2일(금)오후 7시 본 교회 602호와 603호실에서 본선 및 결선을 갖는다.

본선 및 결선은 2개 조로 나뉘 1조는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로 편성되어 602호에서 실시하고 2조는 대학, 청년, 장년부 및 각 부 교사들로 편성하여 603호실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유치부와 유년부는 특별조로서 별도로 실시한다. 본선 및 결선을 통해 최종 선발된 대표는 11월4일(주) 저녁찬양예배시간에 시상을 하게 된다.

성시(聖詩) 공모한다

- 11월18일까지 -

우리교회는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성시를 공모한다.

이번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성시의 종류는 송영, 기도송(어린이 예배를 위한 기도송)과 일반 찬양,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위한 절기 연주용 찬양을 위한 것이다.

일반 찬양일 경우 찬송가처럼 1, 2, 3절과 후렴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복음송을 위한 시도 가능하다. 박정선 집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므로 감정에 치우친 내용이나 개인의 신앙체험을 표현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성시는 1차로 11월 3째 주(11월18일)에 마감하며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된 시는 심사와 운문 과정을 거쳐 11월

마지막 주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호 순례자에 실리며 후에 박정선 집사가 곡을 붙이게 된다. 한국교회음악사에 길이 남을 이번 성시 공모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오늘 찬양예배시 새가족 환영회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10월중에 등록한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식을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지난3주간에 43명의 새가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오늘 새가족 환영에 참여하실 분은 (오세혁 신미란 김순자 주은미 장인석 강옥자 강선자 이현석 김성준 권현숙 김기욱 권영월 김용준 김소애 김경희 이병열 이은진 최병준 한정근 장해란 김복삼 정수진 김향기 이은주 박용자 장부자 이진용 성시옥 표영임 이

화덕 배현주 이다예 정태권 김영경 최정인 곽선자 이형자 이정형 백남운 김지희 백승은 장성운 박용자)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다.

이번주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개역개정판 미 6:8)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NIV Mic 6:8)

지난 주 우리교회는



- ① 우리교회에서 열렸던 강림노외 주최 어린이 종합 발표회 - "어린이는 과일나무와 같다"
- ② 대치역과 우리교회의 자매결연식 - 많은 전도할 동이 이루어지길..



경 지하철 대치역, 서울교회 자매결연 축

이사야서 강해

예루살렘의 회복

(이사야 52:1 - 6)

예수님은 또한 교회가 영적인 자유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 받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중운 목사



구약에서 시온은 신약에서 교회와 같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1절). '깰지어다'는 히브리어로 '우리'라고 읽으며 이 말의 뜻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힘을 낼지어다'는 이제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1.교회의 힘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입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세나 웅장한 건물 혹은 엄청난 예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 많으므로 자기들의 교단이 장자 교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교인의 수나 권세에 의하지 않습니다.

(1)교회의 힘은 진리와 성결함에 있다(1절)

수 세기 동안 파도가 몰아치고 닳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대한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그 곳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움이 없을 것임이라"(1절).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혹은 세속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부정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I will build my church)"(마 16:18)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베드로가 아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진리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엡 4:14),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전 16:13).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리 안에서 강건한 교회, 거 것이 튼타지 못하는 교회이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갈 5:1). 예수님은 또한 교회가 영적인 자유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 받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움이 없을 것임이라"(1절).

예수님께서도 또한 교회가 성결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같은 의미의 말로서 할례는 구별함을 말하는데 특히 영적 할례를 말합니다.

(2)교회의 힘은 열매 맺는데 있다(2절)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앓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2절).

힘이 있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①"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티끌같이 더러운 세속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사 47:1).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티끌에 내려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곧 성도에게는 티끌을 털어 버리라고 하십니다. 시온은 오랫동안 누워서 티끌에 덮혀 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털어 버리고 일어나 앓으라고 하십니다.

②"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앓을지어다". 바벨론을 향하여 티끌에 내려앉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는 일어나 존귀한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앉아야 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③"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 버리고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의 작고를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펴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다(막 3:5).

(3)교회의 힘은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할 때 생긴다(5절)

태양의 힘은 세기를 거듭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태양은 빛과 열을 내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와 같이 태양의 힘은 썩어 없고 계속 사용되면서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사랑으로 고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며 방황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실족한 자를 세우시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3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노예가 되도록 묵인하셨을 때 그 대가로 아무 것도 받지 않으셨지만(사 50:1)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데려올 권리도 있으십니다(사 45:13).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행할 때 교회는 태

양 같은 힘을 내뿜습니다. 한편 진리와 성결과 맺은 열매가 있는 교회의 힘은 기도와 말씀과 영적 운동과 선한 일을 하는 등의 합당한 영양 공급이 계속 되어야 유지됩니다.

2.교회는 알아야 할 것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6절).

교회는 하나님의 성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엘로힘 또는 여호와임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처럼 비 공유적 성호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교회의 원수인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필경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구원하시므로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교회는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교회는 강해집니다.

3.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

이스라엘은 세 번이나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초대를 받아 자발적으로 애굽에 내려가 우거하다가 노예처럼 천한 생활을 했습니다(출 1:13-14). 그리고 앗수르 왕들(디글랏빌레셀, 사르곤, 산헤립)에게 포로로 끌려갔었고 세 번째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값없이 이스라엘을 소유했고 그들의 권한을 잔인하게 남용했으며 계속해서 여호와와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 즉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5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원수들은 교회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요 구속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 계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주의 사명자대회 각 주력 부서 . 교구 안내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금요기도회 주관부서

월 일	교 구	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11. 2(금)	전교구	바울, 마리아	권사회	호산나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70인 전도대 주력 부서

월 일	교 구	남선교회/여전도회
11. 3(토)	5. 6교구	안드레, 루디아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24시간 연속 기도회 주력교구

10. 28(주)	10. 29(월)	10. 30(화)	10. 31(수)	11. 1(목)	11. 2(금)	11. 3(토)	11. 4(주)
7교구	4교구	11교구	6교구	1교구	8교구	3교구	8교구

전도의 기쁨

노문 환장로(11 교구)

정말 오랜 만에 한터 공원으로 전도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동안 몇몇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전도를 나가게 되니 새롭기도 하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왕에 미음먹고 시작한 일이니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몇 사람을 불

들고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은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함께 전도 한 장로님 가운데 바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간접적인 기쁨이나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 지 않을 수가 없다.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때로는 수모를 당할 각오도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굳이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무르익어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초

라하게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슨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연초에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일들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가를 되돌아보 니 너무나 부끄러운 결과에 실망만 하게 된다.

금년 가을에는 이런 반복에서 벗어나 보고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기로 작 정하였다.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하고 전도의 동지들이 필요 하다. 함께 짐을 나누어 질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려 넓은 들판으로 우리 함께 나서 보지 않겠는가.

1.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는?

당시(16세기 초)의 로마교회는 교황의 사치와 성당의 무리한 신축으로 인해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재정수입을 갖고는 교황청 살림 유지가 어려워지자 면죄부를 내세워 재정 수입을 충당하게 되었다. 교황은 '특별 면죄권', 즉 면죄부를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정당화시켰다.

"중세의 기독교인은 태어나면서 유아세례를 통해 원죄를 용서받으나, 성장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유보 된다. 그 상태로 죽으면 유아세례를 받았기에 지옥에는 안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도 갈 수 없어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면죄부를 사게 되면 지은 모든 범죄를 사함 받게 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황청의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려고 도둑질도 하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면서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2.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는?

1517년 10월 31일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당긴 루터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에 의거하여 '이신칭의(以信稱義)'를 내세웠다. 즉 믿음을 얻는 길은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와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 이는 권위의 근거가 교회에서 성경으로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데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었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세 교권주의를 타파하고, 개인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3. 종교개혁의 원리는?

루터의 "오직 성경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 이 종교개혁의 기본원리다. 중세는 사도의 전통을 지켜온 교회가 신적 권위마저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항한 것이 "오직 성경만"의 원리다. 개혁자들은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판단의 근거라고 제시하였다. 이 원리는 당시의 사회질서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성서 자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오직 믿음"의 원리는 사회적, 종교적 제도가 구원을 준다는 논리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 개인의 내면적인 자기 결단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원리는 예수가 진정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그를 따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원리다.

4. 개혁자의 결단은 무엇인가?

루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 사람이다. 1521년 4월 18일 오후에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 "나는 성경의 증거와 분명한 실명이 없이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믿지 않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포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역사를 바로잡았다. 말씀의 능력은 무엇보다 사람을 변하게 한다. 한국교회의 갱신도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개혁을 한다고 조직을 만들거나, 세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뿌려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신다.

새로왔어요

봉사자들의 자세에 감동되어

김석범, 이은희 집사(12교구)연승(9세), 현영(3세)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된 동기와 앞으로 봉사하실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평소 이종운 목사님 말씀을 좋아했고 약 4개월 동안 등록을 안하고 다니다가 봉사자들의 자세와 열심을 본받아 등록하게 됐어요.

애들이 어려서 제대로 봉사하기가 여의치 못하군요. 여하튼 주중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젊은이들이 북적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집사님, 경기대학교 신우회 총무로 교수로 아빠로 남편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람되고 감명 깊은 일들을 들려주세요.

-먼저 좋은 동반자인 아내를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회심하는 자들도 많았고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과 이웃과 관계를 치유해야 한다는 걸 배웠 습니다. 우리 나라가 유니세프에서 조사한「교사에 대한 신뢰도」에서 최하위를 나타냈다니 놀라운 일이지요.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른 공경이란 헛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집사님도 간증하실 일이 많으실텐데요.

-장로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이라서 뜨거운 신앙은 아니어도 주일성수에 대해 훈련받은 것을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꼭 필요한 만큼 계속 채워주심을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의 예쁜 신앙 속에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현영이에게 밥을 먹일 때 "엄마 기도해야죠"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업주부는 프로의식이 필요한 비켜갈 수 없는 어려운 직업이지요. 전문직은 한가지만 잘하면 되지만 주부직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만능 텔런트가 되어야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몸소 본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